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3년8개월 도청생활 마무리  
민주당 목포위원장 공모 신청

전남도는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4일 도청 직원들과 환송행사를 갖고 3년8개월여 동안의 도청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 부지사의 공식적인 퇴임식을 생략하고 환송행사로 대신했다. 환송행사에서는 우 부지사가 도청에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과 유언을 가리지 않고 국회와 중앙정부, 전남 구석구석을 방문하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또 재직기념에 전달과 희망 실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석별의 노래 합창 등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우 부지사는 퇴임인사를 통해 "오늘 도청 현안사업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마지막까지 도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아직도 도에는 많은 현안사업이 있는 만큼 어디에 있건 도민을 위해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우 부지사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총무과장,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제3대 통계청장,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통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우 부지사는 지난 2014년 8월 취임한 이후 그 동안 중앙과 지방정·관계를 풍부한 인맥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도청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도청 안팎에서는 2016년 전국 일자리 종합대상,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국비 6조원대 확보, 1조원 규모의 여수 경도 투자협약 등에 우 부지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평이다.

우 부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면서 정계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환 기자

# 농어촌공 전남본부, 양식어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올해 142억원 투입해 히트펌프·인버터 설치 등 지원할 계획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돕는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을 올해도 연속 추진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올해 142억원을 투입해 전남지역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히트펌프와 인버터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양식어가가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유류와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일정온도를 유지해 생산성 증대와 경영여건 개선을 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배출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설비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양식장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예비사업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열었다.

윤석군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기술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전을 돕고 올해 새로 시행하는 사업에 많은 양식어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 기자수첩 /

### 뜨거운 감자된 농산물 도매시장

무안군 농산물 도매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된 채로 27년 동안 흥물로 방치돼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도비 25% 군비 15% 민자 60%로 시작했고 본 사업은 무안군 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매하고 6~7단계의 유통과정을 3~4단계로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통마진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상위에 위반 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무안군은 91년7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93년 기부채납을 추진했으나 임직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보존증기를 실행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산물 시장은 국가 기관의 일방적 횡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민초들을 회망에 부풀게 해 투자자를 모집해 농산물 시장을 만들어 놓고 단 하루도 영업을 못한 채 농안법 제13조에 위배된다는 통보를 받아 개점 휴업 상태에 27년간 묶여 놓은 것이다.

91년4월 도매시장 개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임직자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정부가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허가 기관이자 예산을 지원했던 전남도가 자체 감사를 벌였다. 그러자 무안군 의회는 마지못해 특위를 구성해 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정부기관 모두가 제 식



구 감싸기와 한통속이었다는 오명을 씻을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단적으로 책임질 공무원을 가려내고 징계를 해야 할 판이었다.

너육이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무안 군의원들이다. 무안군의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알고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했던 사건에 대해 그동안 군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만 했다는 비난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보상대책추진위가 구성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상대책위 측 관계자는 무안군 의원들은 6.13지방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이 사건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사업비를 어떻게 변경하여 사용했는지 특위활동을 했던 전 의원들의 발자취를 살펴봐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집행부의 임의대로 사용한 것을 묵인했다면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주승용·권은희

바른미래당 전남도당·광주시당 위원장으로 각각 주승용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선출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전남도당·광주시당 공동 개편대회를 열었다.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주승용 의원, 지지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편대회는 개혁신안에 이어 경과보고,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로 진행됐다.

결과 주승용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권은희 의원이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주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호남 지역민들은 민주당회당에 심판을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받아 당선되더라도 풀뿌리 지방일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개혁과 통합, 미래, 올바른 가치를 담고 있다"며 "저는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에서 뒤졌지만 호남민의 힘으로 이긴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영규 기자

### 동구, 청년정책 구정에 적극 반영

광주 동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동구 청년네트워크'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구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반영해 구정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협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위원회로 지난해 17기에 이어 올해 2기가 새로 구성됐다.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 등 20~30대 연령대 청년 24명으로 구성된 2기 청년네트워크는 ▲참여활성화 ▲고용확대 ▲생활안정 ▲문화활성화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 서구, 지방선거 선거종립·특별감찰 실시

광주 서구가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종립 업무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나섰다.

선거종립 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 11명의 감찰반을 편성하여 5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집중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출대기,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한다.

### 남구 "음식점 손씻기 시설 설치비 지원합니다"

광주 남구는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손 씻기 생활화를 통한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면대 등 손 씻기 시설지원 사업에 나선다.

공개 모집을 통해 총 5개 음식점을 선정, 식중독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출입구와 객석 등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주로 수도와 하수 배관공사, 세면대, 거울, 종이 타올기 설치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소별 100만원 이내(설치비용 70%)이며, 설치 이후 2년 이상 유지 및 관리를 해야하며, 업소 양도시에도 양수인에게 인계해 관리가 이뤄지는 조건이다.

### 북구,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역량강화 지원

광주 북구가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개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자체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디자인 개발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통해 기업 이미지 향상, 매출신장 및 투자유치 등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총 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원분야는 ▲상표·제품 이미지(BI) 및 기업이미지(CI) 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해키지 디자인 개발 등 2개 분야이며, 중소기업과 디자인전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부터 디자인 상표출원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참가자격은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이상 분사 또는 공장이 북구에 소재해야 한다.

### 광산구, 한국건설관리공단과 기술지원 협약

광주 광산구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일 건설공사분야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산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성수 광산구청장 권한대행과 이명훈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가 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토목·건축·건설·전기·소방 분야의 기술 전문과 전문 인력을 제공한다. 광산구는 이번 협약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의 내실을 크게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점검량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해 지역 안전도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포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